

우리는 예수사람 이에요!

대한예수교장로회 후암교회

기도회	김태영 목사
찬양	Shem과 함께
대표 기도	박원철 형제
성경 봉독	벤전 2:9
말씀 선포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
기도회	다같이
봉헌송	다같이
축도	김태영 목사
광고	문정환 형제
축하순서	신민경 자매

청년부를 섬기는 사람들

지도 김태영 목사	부장 이혁주 장로
회장 이수연 자매	부회장 문정환 형제

예배를 섬기는 사람들

대표 기도 및 봉사순

08월 26일	이승환 형제	이수연 자매순
09월 02일	김상갑 형제	최정현 형제순
09월 09일	박원철 형제	박은미 자매순
09월 16일	류명림 자매	박민선 자매순

1. 오늘 예배후 5시부터 주춤(유년부실),
임역원회의(교사실) 있습니다.
2. 순장님들은 주간보고서 꼭 작성해 주시고
작성 후 가져가지 마시고 놓고 가세요^^
3. 다음주는 주춤 헌신예배로 드려집니다.
기대하며 함께 기도해 주세요*^^*
4. 작년 네팔선교 다녀오신 분들은 광고가
끝나자마자 앞으로 잠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주별 맡는 사람들

팀장 안택

팀원: 안택, 전영, 화영, 송옥, 윤영, 선영, 박원철

문서 선교팀 커뮤니티

www.coram.kr

이제 쉽고 편하게! 코람다케이알~

You are good

(종교신 하나님)

Shout Praise! Kids Gospel

Lord You are good and Your mer-cy en-du-eth for-e-ver
 주은신하나님인자와자비영원히.
 Peo-ple from e-ve-ry na-tion and tongue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 We
 각나라족속과백성방언세상모든세대영원토록주
 wor-ship You - hal-le-lu-jah hal-le-lu-jah We
 경배해할렐루야할렐루야주
 wor-ship You - for who-you-are - We You-are-good!
 경배해주하나님주
 You are -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You are - good

<http://cafe.daum.net/jlovesm>

모임시간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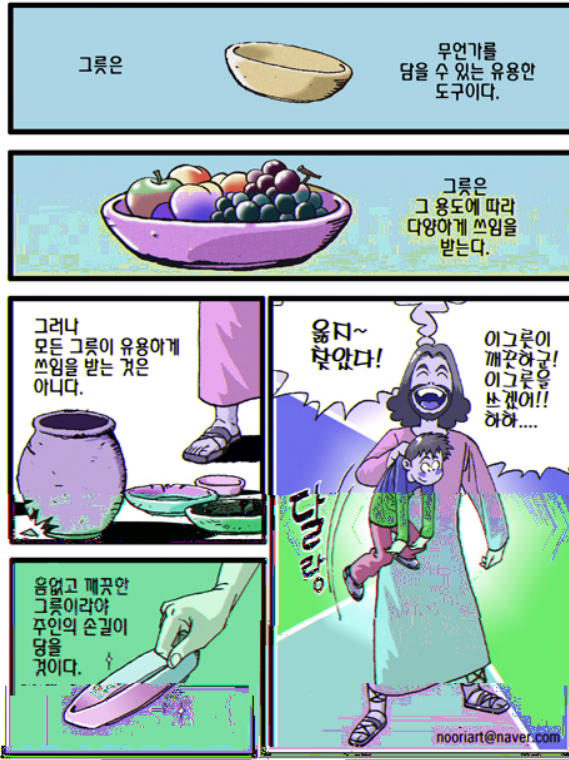
- ♪ 청년부 예배 주일 오후 2시/청년부실
- ♪ 청년부 기도회 토요일 오후 4시/청년부 교사실
- ♪ 찬양팀 모임 토요일 오전 10시/청년부실
- ♪ 문서팀 모임 토요일 오후 5시/청년부실
- ♪ F.C 예람 모임 토요일 오전 (시간은 때에 따라)
- ♪ G.S 선교팀 모임 수요일 오후 8시 30분

이 시대를 풍미하는 시대정신(zeitgeist)은 끔찍스러운 정도로 뻔뻔한 모습에서 가장 분명하게 드러난다. 이런 모습은 사람들의 패션이나 문학, 예술, 음악을 통하여 창조주로부터의 내면적인 분리와 분열을 표출하고, 인간의 저급한 본능을 부추기는 경향으로 나타난다. 좀더 깊은 차원에서 살펴본다면, 이런 시대정신은 도처에서 나타난다. 정부와 기업의 부패, 가족과 인간관계의 붕괴, 학교 제도의 해체, 대중 매체와 의료계와 법조계에 만연한 부패, 그리고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수많은 교회에서 극명하게 보여주는 영적 공황과 위선이다.

이 모든 시대정신에 대한 예수님의 태도는 분명하다. 주님은 이 세대의 영을 "사탄의 영," "형제를 송사하는 자," 또한 "태초부터 살인하는 자"라고 폭로하시며 단호하게 정죄하신다. 그러면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스스로 던지도록 촉구하신다. "이처럼 소란스럽고 첨예하게 분열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어디에서 찾을 것인가?"

생각지킴 94: '이 시대를 보는 눈'

* 그릇(1) - essay.37 -



* 지금 "나" 라는 그릇은 어떻게?
적당히 세창과 타형하며 정결하지 못한 모습으로
주님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지는 않은지요?!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히 쓰는 것도 있고 천히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디모데후서 2장 20~21절)

믿음생활 에세이: <http://blog.naver.com/nooriart>

뻔뻔한 세상사를 바라보며 통분을 삼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악한 세대에 대한 예수님의 판단은 분명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분의 가장 큰 관심사는 이런 가운데서 그분의 (세미한) 말씀에 우리가 어떻게 귀를 기울이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사모한다 하면서 정작 세상의 이야기에 더욱 귀 기울이는 우리는 아닌지...

잠시 돌아보는 시간 이였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초 집에서 TV를 없애 버리면서부터 운전을 할 때나 특별히 급한 일이 없을 때 인터넷 포털 사이트를 넘나들며 뉴스를 기웃거리는 자신을 발견할 때가 많습니다.

이런 '뉴스'에 대한 관심은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중독이 아닐까? 느껴질 때도 있더군요.

집안에서 TV를 없애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세미한 음성에 귀 기울일 것인가?" 에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할듯합니다.